

중세국어 특강

중세국어 1. 초췌하기

그믐달(이용우) 편저

2. 중세국어

1. 훈민정음 창제 원리

: 글자의 구성

초성(첫소리, 자음)

중성(가운뎃소리, 모음)

종성(받침소리, 자음)

[초성의 제자 원리]

첫 번째, 발음 기관 상형 => 초성 오음 (ㄱ, ㄴ, ㄷ, ㅅ, ㅇ) 생성 후

두 번째, 가획과 병서의 원리 적용

조음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자	가획자	병서자	이체자
아음(어금닛소리)	ㄱ	ㅋ	ㄲ	◦ (옛이음)
설음(혓소리)	ㄴ	ㄷ, ㄸ	ㄸ	ㄹ (반설음)
순음(입술소리)	ㄷ	ㅌ, ㅍ	ㅍ	
치음(잇소리)	ㅅ	ㅈ, ㅊ	ㅉ, ㅊ	△ (반치음)
후음(목구멍소리)	ㅇ	ㅎ (여린 히음), ㅎ	ㅃ (쌍히음)	

※ 나란히 쓰는 글자 (병서자)

각자 병서 : 같은 자음끼리 결합 - 쌍자음 (ㄲ, ㄸ, ㅍ, ㅉ, ㅊ)

합용 병서 : 다른 자음끼리 결합 - 초성 합용병서 'ㄱㅅ, ㄴㅅ, ㅅㅅ/ㅆ, ㅅㅈ, ㅅㅊ/ㅆ, ㅆ'

중성 합용병서 'ㄱㅅ, ㄴㅅ, ㅅㅅ'

종성 합용병서 'ㄴㅅ, ㄹㅅ, ㄹㅅ, ㄹㅅ, ㄹㅅ'

(1933년, 각자병서(ㄲ, ㄸ, ㅍ, ㅉ, ㅊ)로 국어의 된소리 표기가 통일되었다.)

[중성의 제자 원리]

첫 번째, 우주의 요소 삼재 (천, 지, 인) 상형

두 번째, 초출, 재출의 원리 적용

	기본자	초출자(기본+·)	재출자(초출+·)
천天	· (둥근하늘)	ㅍ ㅑ	ㅑ ㅑ
지地	ㅡ(땅)	ㅍ ㅑ	ㅑ ㅑ
인人	ㅣ(사람)		

[종성의 제자 원리]

종성부용초성 => 초성을 다시 종성에 사용한다. (부 = 다시)

- 창제 당시 : 종성부용초성 ex) 스뭏디
- 중세 국어 : 8종성표기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ㅅ) ex) 스뭏디, 쏼
- 근대 국어 : 7종성표기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ㅅ) ex) 쏼
- 현대 국어 : 종성부용초성

※ 음절끝소리규칙과 구별 : 형태론 vs 음운론

<고어분석기>

① ‘ㆍ’ (아래 아) 해석

- 첫째 음절 ‘ㆍ’ : ‘ㅏ’로 해석하세요.
- 둘째 음절 이하 ‘ㆍ’ : 주로 ‘ㅡ’로 해석하세요.

ex)

돌 ⇒ 달

꺾을 ⇒ 가을

말삿미 ⇒ 말쓰미 ⇒ (이어적기) 말씀이

② 이어적기

-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이어적기가 된 것이 아닐까
뒤 음절 자음을 앞 음절 받침으로 옮겨보세요.

ex) 버디 ⇒ 벌이

기퍼 ⇒ 깊어

바티라 ⇒ 밭이라

③ 구개음화가 진행되지 않은 형태

- 'ㄷ, ㅌ'과 'ㄹ'모음 계열(ㄷ, ㅌ, ㄹ, ㅍ, ㅍ, ㅍ, ㅍ, ㅍ, ㅍ)로 존재할 때, 구개음화해서 해석하세요.

(디, 다, 더, 도, 듀, 대, 데) ⇒ (지, 자, 저, 조, 주, 재, 제)

(티, 타, 터, 토, 튜, 태, 테) ⇒ (치, 차, 처, 초, 추, 채, 체)

(④ 이중모음 :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해석해주시기)

ex) 더기 더 여인 ⇒ 저기 저 여인 (속미인곡 中)

기심더 고터 올라 둥향성 바라보며, (관동별곡 中)

⇒ 개심대 고쳐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테세 ⇒ 체세, 텃디간 ⇒ 천지간 (관동별곡 中)

④ 이중모음

-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해석하세요.

ex) 죠션 ⇒ 조선

물정 ⇒ 물정

자근 거시 ⇒ 자근 거시 ⇒ (이어적기) 작은 것이

⑤ 어두자음군

ㄷ, ㅂ 같은 어두에 ‘자음군’이 있는 형태

- 뒤 자음의 된소리로 해석하세요.

ex)

꽃 ⇒ 꽃 ⇒ 꽃

쁘고 ⇒ 쓰고

봄꽃 ⇒ 봄뜻

⑥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

- ‘ㄴ’과 ‘ㄹ’모음 계열(ㄴ, ㄷ, ㄹ, ㄷ, ㄷ, ㄹ, ㄹ, ㄹ)이 첫음절로 올 때,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ㄴ을 ㅇ으로 바꿔 해석해주세요.

(니,냐,녀,뇨,뉴,내,네) ⇒ (이,야,여,요,유,애,예)

ex)

녀름 ⇒ 여름

녀산 ⇒ 여산

넷날 ⇒ 옛날

- ‘ㄹ’이 첫음절에 올 때, ‘ㄴ’으로 바꿔 해석해주세요.

ㄹ ⇒ ㄴ

ex) 로인 ⇒ 노인

량심 ⇒ 낭심 ⇒(ㄴ+‘ㄹ’모음계열 두음법칙) 양심

⑦ ‘ㅎ’(반치음)

‘ㅎ’

‘ㅎ’이 형식형태소에 쓰였을 경우

- ‘무음’으로 읽으세요.

ex)

막스미 ⇒ 마으메 ⇒ (이어적기) 마음에

돌하 ⇒ 달아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 길에

⑧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의문문 표현

㉠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

(보조사 **고/오**) + (종결어미 **-오/-뇨**)

ex) 이 었던 사름**고**

이제 어디 잇는**뇨**

이 내 생애(生涯) 었더**흔고**(상춘곡 中)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어부단가 中)

어와 더 디위를 어이**ㅎ면** 알 거**이고**

(⇒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것인가? 관동별곡 中)

㉠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

(보조사 **가/아**) + (종결어미 **-아/-냐**)

(주어 2인칭 ‘-나다’ 특수한 의문형 어미)

: 의문사가 없기에, 모르**면** 의문문. 설의법 해석불가능

ex) 이 쓰리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냐?)

오르디 못**ㅎ거니** 내려가미 고이**홀가**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가능할까? 관동별곡 中)

네 모르**던다** (⇒너는 모르**느냐**?)

네 었데 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

천만 겁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다**.

(⇒천만 겁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관동별곡 中)

⑨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

ex) 물**불**플 ⇒ 물**불**플

⑩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

- ㅅ, ㅈ, ㅊ + ‘ㅡ’ ⇒ ‘ㅣ’

(스,즈,츠) ⇒ (시,지,치)

ex) 존**되** ⇒ 존**대**

거**촌** ⇒ 거**친** (고공가 中)

⑪ 중성(받침) 표기법 8중성법에서 7중성법으로의 변화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 (ㄷ받침이 쓰이지 않는)

8중성법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개의 중성표기만 하겠다.

7중성법 : 8중성법에서 ㄷ받침만 빠집니다.(ㅅ으로 통일)

=> (ㄷ이 존재하면 ‘확실한’ 8중성법)

=> ‘ㅅ이 있으면 ㄷ과 바꿔보는 센스’

ex)

벌(8종성법) ⇒ 벗(7종성법)

못[연못], 못[불능] (8종성법) ⇒ 못(7종성법)

밋어(7종성법) ⇒ 밋어(8종성법)

⑫ 방점

- ① 왼쪽에 찍는 점
- ② 성조(소리의 높낮이) 발생
- ③ 이후 소멸됨

15C 대표 작품 탐구

<世、세宗宗御、영製·정訓、훈민민正、정음음>

나、랏:말쓰、미

中동國、꺀、에달、아,

文문字、쫑、와로서르스뫑、디、아니힐、씨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이런전、츄、로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흫、배이、셔、도

믄、츄、내제、쁘、들시、러퍼、디:뫑흫、노·미하、니、라

내、이、를爲、윙、헝、야:어엿、비너、겨

이런 까닭으로 어린(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얻어,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스、물여、뫑字、쫑、를밍、꺀노、니

:사를:마、다히...여:수、뵈니、겨、날、로、뿌、메

便便安안、꺀헝、고、저흫쓰르、미니、라.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하여 쉬이(쉽게) 익혀 날로 씬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15C 표기상 특징	16C 표기상 특징
1)	동국정운식 표기	동국정운식 표기 사라짐
2)	이어적기	이어적기뿐만 아니라, 끊어적기도 나타남.
3)	르 불규칙 르ㅇ활용	르 불규칙 르르활용
4)	명사형 전성어미 음/음	명사형 전성어미 -기도 나타남
5)	모음조화	모음조화 파괴
6)	각자 병서, 합용 병서를 사용	합용 병서 사라짐

15C와 16C 공통	
7)	8종성
8)	구개음화/원순모음화/단모음화/두음법칙 X
9)	방점

16C 대표 작품 탐구

<소학언해(小學諺解)>

孔夫子、지 읍증子즈드、려

닐、러 골으、샤、디

、몸、이며 얼굴、이며머、리털、이、며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흔、부 : 모、끼 받 즈、온 거、시 라

: 감、히 혈、워 상 히、오、디 아、니 : 흙、이

: 효、도、의 비、르、소 미、오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혈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 도、를 행、하、야

일 : 흙、을 : 후 : 세、예 : 베 퍼、써

、부 : 모 를 : 현、더 케 : 함、이

: 효、도、의 마、참、이 니、라

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림으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 유·익 한·이 : 세 가·짓 : 번·이 오

: 해·로 온·이 : 세 가·짓 : 번·이 니

·딕 한·이·를 : 번 하·며

: 신·실 한·이·를 : 번 하·며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니
정직한 이를 벗하며
믿음직한 이를 벗하며

들 : 온·것 한·이 를 : 번 하·면 : 유·익 하·고

: 거·동·만 니·근·이·를 : 번 하·며

아 : 당 하·기 잘·하·는·이·를 : 번 하·며

: 말 슴·만 니·근·이·를·번·하·면 해·로·온 이·라

들은 것 많은 이를 벗하면 유익하고
행동만 익은 이를 벗하며
아침하기를 잘하는 이를 벗하며
말만 익은 이를 벗하면 해로우니라

	15C 표기상 특징	16C 표기상 특징
1)	동국정운식 표기	동국정운식 표기 사라짐
2)	이어적기	이어적기뿐만 아니라, 끊어적기도 나타남.
3)	르 불규칙 르ㅇ활용 ex) नी어, 달아	르 불규칙 르르활용 ex) नी러, 달라
4)	명사형 전성어미 음/음	명사형 전성어미 -기도 나타남
5)	모음조화	모음조화 파괴
6)	각자 병서, 합용 병서를 사용	합용 병서 사라짐

15C와 16C 공통	
7)	8종성
8)	구개음화/원순모음화/단모음화/두음법칙 X
9)	방점

중세국어 특강

중세국어 1. 초췌하기

평가원, 교육청 전문제

(+17.6평 포함)

그믐달(이용우) 편저

152. <보기>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4예비평가)

<보 기>

나랏 ㉠말쌈미 中囹國극에 달아 文문字字종와로 서르 슷디 아니홀씨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ㅎ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ㅍ디 ㅁㅎ ㉢노미 ㉣하나라 내 이를 爲嵬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슷물여들 字종를 ㅁㅇ노니 사름마다 ㅎ이여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便安한키 ㅎ고져 ㅎ ㅅ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슷물여들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말쌈'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② ㉡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③ ㉢의 '놈'은 '사람'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쓰이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④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뜻이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⑤ ㉤의 '어엿보다'는 '가엾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니까 의미 이동의 예야.

153.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14.6평)

<보 기>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 | | ㉡ |
| ① | 마늘 > 마늘 | | 흙 > 흙 |
| ② | 사슴 > 사슴 | | ㅁ장 > 가장 |
| ③ | ㅎ나 > 하나 | | 오늘 > 오늘 |
| ④ | 사름 > 사람 | | ㄷ리 > 다리 |
| ⑤ | 아들 > 아들 | | 다춧 > 다섯 |

154. <보기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4.9평)

<보기 1>

(가) ㅇ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본 소리 ㄷ외느니라
[풀이] ㅇ를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나) 첫소리를 어울워 ㅼ디면 굴바 ㅅ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보기 2>

나랏 말쌈미 中囹國극에 달아 文문字字종와로 서르 슷디 아니홀씨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ㅎ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ㅍ디 ㅁㅎ 노미 하나라 내 이를 爲嵬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슷물여들 字종를 ㉢ㅁㅇ노니 사름마다 ㅎ이여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便安한키 ㅎ고져 ㅎ ㅅ르미니라

- | | | | | | |
|---|-----|-----|--|-----|-----|
| | (가) | (나) | | (가) | (나) |
| ① | ㉠ | ㉡ | | ② | ㉢ |
| ③ | ㉣ | ㉤ | | ④ | ㉤ |
| ⑤ | ㉤ | ㉤ | | | |

155.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수능)

<보 기>

-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ㄷ’과 ‘ㅈ’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ㅈ’은 ‘ㅈ’과 ‘ㅊ’이, ‘ㅊ’은 ‘ㅈ’과 ‘ㅊ’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ㅈ’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결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 :말쌈·미 中囡·궤·에 달·아 文文字·쥬·와·로 서르
스랏·디 아·니·홀·썩 ·이런 전·츄·로 어·린 百·빅·姓·성·이 니
르·고·져 ·홀 ·배 이·셔·도 믫·츄·내 제 ·**쁘·들** 시·리 퍼·디 :
물·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쥬·를 밍·ᄃ·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의 호·고·져 홀 썩·르·
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쁘·들’의 ‘ㅈ’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뿌·메’에는 연결 표기가 적용되었군.

15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15.6평)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의, ㅅ, ㅈ’가 있었다. 이 중 ‘의, 의, ㅅ’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의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예) 늑+의 : 늑^의 뜯 거스디 아니하거든 (늑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 거^의부^의비 터리 곧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ㅅ : 大王^ㅅ 말쌈미사 울커신마룬 (대왕의 말씀이야 옳으시지만)

나무+ㅅ : 나^ㅅ못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 |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 **술위+㉡** 글위를 닐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 | |
|---|---|---|
| ① | ㉠ | ㉡ |
| ② | ㅅ | ㅅ |
| ③ | 의 | ㅅ |
| ④ | ㅅ | 의 |
| ⑤ | 의 | 의 |

157.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9평)

<보 기>

중세 국어: 뒤에는 모던 도죽 알퓌는 어드본 길헤 업던 번개를 하늘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뒤에는 모딘 중싱 알퓌는 기븐 모새 열븐 어르물 하늘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얹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① '모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③ '하늘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군.
-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열븐'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브'가 쓰였군.

15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수능)

	[중세 국어] ㉠부텃 마를 ㉡들즈보딘 [현대 국어] 부처의 말씀을 듣되
학습 자료	[중세 국어] 닐굽 ㉢거르물 거르샤 ㉣니르샤딘 [현대 국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이르시되
	[중세 국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현대 국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학습 활동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가])

- ① ㉠: 관형격 조사로 '스'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59.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6.6평)

<보기 1>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을 중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중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ㅈ히 (ㅈ+이) 즐어들 (ㅈ+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예: ㅈ토 (ㅈ+도) 뒤더니 (ㅈ+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스'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다른 ㅈ (ㅈ+스) 風俗은 (다른 ㅈ의 풍속은)

<보기 2>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랑+을) 아스맛디	나라를 아우에게 말기
㉡ (깊+스)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예
㉢ (얹+과) 밧	안과 밧

- | | | | |
|---|-----|---|----|
| | ㉠ | ㉡ | ㉢ |
| ① | 나라홀 | 깊 | 안과 |
| ② | 나라홀 | 깊 | 안과 |
| ③ | 나라홀 | 깊 | 안과 |
| ④ | 나라올 | 깊 | 안과 |
| ⑤ | 나라올 | 깊 | 안과 |

160.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9평)

<자 료>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도훈** 빗 **보고져** 귀에 **도훈** 소리 들
고져 고해 **도훈** 내 맡고져 이베 **도훈** 맛 **먹고져** 모매 **도훈**
옷 닙고져 흘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빗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은'이 '오욕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도훈 빗 보고져'가 '눈에 좋은 빗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도훈 빗'은 목적어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군.
- ④ '도훈'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도훈'은 용언의 관형사형이었군.
- ⑤ '먹고져'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져'는 종결어미로 쓰였군.

161.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수능)

<보 기>

王(왕)이 니르샤티 大師(대사) ㉠**흐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 잇고 ㉡**仙人(선인)**이 솔보티 大王(대왕)하 이 ㉢**南堀**
(남굴스 仙人(선인)이 흘 싹를 길어 내니 양치 端正(단정)하
야 ㉣**世間(세간)**에 ㉤**쉽디** 못흐니 그 쫘 **흐닐**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蓮花(연화)**] 나느니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내
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이'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162~163]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7.6평)

<대화 1>

-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 > 도와’, ‘더벼 > 더위’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ㅇ’ / ㅍ [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 > 도오시니’, ‘서볼 > 서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ㅍ’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ㅇ’ 또는 ‘ㅍ’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 > 아흐’, ‘저서 >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서울’, ‘도오시니’, ‘아흐’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 A :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 B : 그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6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63.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은
②	(신) 굶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 눕다	눅게	누벼	누븐	눅게	누위	누은
④	(머리)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164. <보기>에서 ㉠~㉤에 들어갈 목적격 조사로 옳은 것은?
(14.3)

<보 기>

15세기 국어의 모음 중 ‘·, ㅏ, ㅓ’는 양성 모음, ‘ㅡ, ㅜ, ㅠ’는 음성모음, ‘ㅣ’는 중성모음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모음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을, 툐, 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함께 체언과의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중세국어	현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사람+㉠	사람+을	누+㉡	누구+를
천하+㉢	천하+를	뽕+㉣	뽕+을

- | | | | | |
|---|---|---|---|---|
| | ㉠ | ㉡ | ㉢ | ㉣ |
| ① | 을 | 를 | 를 | 을 |
| ② | 을 | 를 | 을 | 를 |
| ③ | 을 | 을 | 를 | 를 |
| ④ | 을 | 를 | 를 | 을 |
| ⑤ | 를 | 을 | 를 | 를 |

165.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4)

<보 기>

千世(천 세)우희 미리 定(정)ᄒᆞᆫ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ᄒᆞ샤 卜年(복년)이 ㉠ᄒᆞ엿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 ᄒᆞ샤사 더욱 ㉡
구드시리이다

㉢ᄒᆞᆫ하 아라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
빌 ㉤미드니잇가

<제125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세종 29년) -

[현대어 풀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이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
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대를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
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
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 ① ㉠: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② ㉡: 선어말 어미 ‘-이-’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
었다.
③ ㉢: 조사 ‘하’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④ ㉣: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⑤ ㉤: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중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
기하였다.

16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7)

<보 기>

의문문에는 청자에게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중세 국어의 경우, 판정 의문문에는 ‘-가’, ‘-너’ 등의 어미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 ‘-뇨’ 등의 어미가 쓰인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나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쓰인다.

ㄱ. 이 썩리 너희 **중가** (이 딸이 너희들의 중이냐?)
 ㄴ. 이제 **엇더호고** (이제 어떠하냐?)
 ㄷ. 네 **모르던다** (너는 모르느냐?)
 ㄹ. 네 **엇데 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

- ① ‘ㄱ’의 ‘이’ 대신 ‘엇더’가 쓰이면, ‘중가’를 ‘중고’로 바꿔야겠군.
- ② ‘ㄴ’의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호고’를 ‘호가’로 바꿔야겠군.
- ③ ‘ㄴ’과 ‘ㄹ’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군.
- ④ ‘ㄷ’의 ‘너’ 대신 3인칭인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고’로 바꿔야겠군.
- ⑤ ‘ㄷ’과 ‘ㄹ’을 보니,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의문형 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군.

167.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14.10)

<보기 1>

국어의 표기법은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하여 왔다. 여기서 이어 적기란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식이고, 끊어 적기란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한편 근대 국어에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과도기적 방식이 나타났는데 이를 거듭 적기라 한다.

<보기 2>

부영이 對答(대답)하야 같오디 이 地方(지방) 스흘은 내 ㉠우를 쇼릭를 미워하논 故(고)로 나는 다른 地方(지방)으로 울무라 하노라 하니 비둘기 ㉡우서 같오디 즈네 우는 쇼릭를 곳치지 안코 居處(거처)만 옮기면 如舊(여구)히 썩 ㉢미워흐을 免(면)치 못하리라 하얏소 이 이이기는 츄 滋味(자미)잇습나이다 여러분 중에도 自家(자가)의 악흔 ㉣일은 곳치지 안코 다른 디로만 가라고 하느니 ㉤잇스

면 이는 亦是(역시) 이 비둘기에게 우슴을 보오리다
 - 「신정심상소학」1896년)에서 -
 (현대어 풀이)

부영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지방 사람은 내 울음소리를 미워하는 까닭에 나는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 한다.”라고 하니 비둘기가 웃어 가로되 “자네가 우는 소리를 고치지 않고 거처만 옮기면 여전히 또 미워함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기의 악한 일은 고치지 않고 다른 데로만 가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이것 역시 이 비둘기에게 웃음을 살 것입니다.

	이어 적기	끊어 적기	거듭 적기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68.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3)

<보 기>

[중세 국어] ㉠부테 目連(목련)이드려 ㉡니르샤되
[현대 국어]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

[중세 국어] 耶輸(야수) | ㉢부텃 使者(사자) 왔다 ㉣드르시고
[현대 국어]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중세 국어] 내 쫄 勝鬘(승만)이 聰明(총명)하니 부터웃 ㉤
보스북면
[현대 국어]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만 비면

- 『석보상절』 -

- ①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③ ㉢: 관형격 조사로 '사'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69.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4)

<보 기>

㉠雙鵬(쌍조) | 혼 사래 ㉡빠니 絶世(절세) 英才(영재)를 邊人(변인)이 拜伏(배복) ㉢흐사북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케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雙鵲(쌍작)이 혼 ㉣사래 ㉤디니 曠世(광세) 奇事(기사)를 北人(북인)이 稱頌(칭송) ㉥흐사북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3장> -

- ①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이'가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 'ㅍ', 'ㅍ'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 ④ ㉣에서 양성 모음 'ㅏ'와 'ㅑ'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에서 '이' 앞의 '디'이 '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17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7)

학습 자료	중세 국어의 ‘습/습/습’은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나타났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다.
	[중세 국어] 聖子를 내㉠신니㉡이다 [현대 국어] (하늘이) 聖子(성자)를 내셨습니다.
	[중세 국어] 世尊尊존사 安否否불 물㉢쥬고 [현대 국어] 世尊(세존)의 安否(안부)를 여쭙고
	[중세 국어] ㉣진지 오를 제 받드시 [현대 국어] 진지 올릴 때 받드시
학습 활동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_____ [가] _____)

- ① ㉠: 주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 상대를 높이는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객체를 높이는 ‘-습-’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받’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171.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7)

<보 기>
<p>[중세 국어] 나라히 파망(破亡)호니 :파·와 ㅁ·롬썸 잇고 ·жат ·얏 보·릭 ·플·와 나모:썸 가궤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늣:므를 쓰·리게 ·코 여·회여·슈를 슬·후니 :새 ㅁ·스·물 :놀·래·느다 봉화(烽火)] :석·드·톨 나·세·사·니 자·빛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p> <p>[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p>

- ① ‘보·릭’은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쓰·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ㅁ·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ㅁ’, ‘·’가 사용되었군.
- ⑤ ‘드·톨’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고육척 해설지
및
전 문제 정답지

164. <보기>에서 ㉠~㉤에 들어갈 목적격 조사로 옳은 것은? (14.3)

<보 기>

15세기 국어의 모음 중 ‘·, ㅏ, ㅓ’는 양성 모음, ‘ㅡ, ㅜ, ㅠ’는 음성모음, ‘ㅣ’는 중성모음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모음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을, 를, 를’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함께 체언과의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중세국어	현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사람+㉠	사람+을	누+㉡	누+를
천하+㉢	천하+를	뽕+㉣	뽕+을

- | | | | | |
|---|---|---|---|---|
| | ㉠ | ㉡ | ㉢ | ㉣ |
| ① | 을 | 를 | 를 | 을 |
| ② | 을 | 를 | 을 | 를 |
| ③ | 을 | 을 | 를 | 를 |
| ④ | 을 | 를 | 를 | 을 |
| ⑤ | 를 | 을 | 을 | 를 |

<보기 해석 및 정답 선택지 해설>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은 2가지이다. 1. 모음조화를 지켜야 함, 2. 받침의 유무(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 1번 조건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 2번 기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표를 이용해 추론해야 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사람+을’, ‘뽕+을’처럼 받침이 있을 때 ‘을’ 사용하고 ‘천하+를’, ‘누구+를’처럼 받침이 없을 때는 ‘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모음조화까지 지켜야 하므로 ‘을, 를’과 결합하는 말 뒷부분의 중성이 양성모음이 오느냐 음성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을’, ‘를’의 중성도 바뀌게 된다. 정리해보면 앞말 마지막 음절의 중성이 양성모음이고 받침이 있으면 ‘을’, 앞말 마지막 음절의 중성이 양성모음이고 받침이 없으면 ‘를’, 앞말 마지막 음절의 중성이 음성모음이고 받침이 있으면 ‘을’, 앞말 마지막 음절의 중성이 음성모음이고 받침이 없으면 ‘를’이 오게 된다.

①번 ‘사람’은 양성모음이 오고 받침이 있으므로 ‘을’, ‘천하’는 양성모음이 오고 받침이 없으므로 ‘를’, ‘누’는 음성모음이 오고 받침이 없으므로 ‘를’, ‘뽕’은 음성모음이 오고 받침이 있으므로 ‘을’과 결합하는 것이다.

165.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4)

<보 기>

千世(천 세)우희 미리 定(정)ᄒᆞᆫ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ᄒᆞ샤 卜年(복년)이 ㉠ᄇᆞᆫ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 ᄒᆞ샤사 더욱 ㉡ 古드시리이다

㉢ ㉣ 낙수(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 빌 ㉤ ㅁ드니잇가

<제125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세종 29년) -

[현대어 풀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이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대를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 ① ㉠: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 어미 ‘-이-’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③ ㉢: 조사 ‘하’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④ ㉣: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중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하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연결 논리] ‘미드니잇가’에서 어간 ‘민-’의 받침 ‘ㄷ’을 어간의 중성과 어미 ‘-으니잇가’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했다면 ‘민드니잇가’로 표기해야 하는데 ‘미드니잇가’로 이어 적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연결 논리] ㉠에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 ‘ㄷ’과 모음 ‘·’가 쓰였다.
- ②번 [연결 논리] ㉡ ‘-이-’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히 대응해서 풀려고 하면 헛갈릴 수 있으므로 암기하는 것이 좋다.
- ③번 [연결 논리]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보면 ‘하’가 ‘이시여’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대상을 직접 호칭하여 높이는 조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 ④번 [연결 논리]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보면 ‘에’가 부사격 조사인 ‘에’와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또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7)

<보 기>

의문문에는 청자에게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중세 국어의 경우, 판정 의문문에는 ‘-가’, ‘-너’ 등의 어미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 ‘-뇨’ 등의 어미가 쓰인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나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쓰인다.

- ㄱ. 이 썩리 너희 **중가** (이 딸이 너희들의 중이냐?)
- ㄴ. 이제 **엇더호고** (이제 어떠하냐?)
- ㄷ. 네 **모르던다** (너는 모르느냐?)
- ㄹ. 네 **엇데 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

- ① ‘ㄱ’의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중가’를 ‘중고’로 바꿔야겠군.
- ② ‘ㄴ’의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호고’를 ‘호가’로 바꿔야겠군.
- ③ ‘ㄴ’과 ‘ㄹ’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군.
- ④ ‘ㄷ’의 ‘너’ 대신 3인칭인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고’로 바꿔야겠군.
- ⑤ ‘ㄷ’과 ‘ㄹ’을 보니,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의문형 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연결 논리] ‘너’를 ‘그’로 바꾸면 ‘그는 모르느냐’라는 의문문이 된다. 이 의문문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판정 의문문이다 따라서 설명의문문에 쓰이는 ‘-고’가 아니라 ‘-가’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 논리] ‘이 딸이 너희들의 중이냐’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판정의문문에 해당하여 ‘중가’로 쓰인다. 그런데 ‘이’ 대신 ‘엇던’을 쓰면 ‘어떤 딸이 너희들의 중이냐?’가 되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문문이 된다. 따라서 ‘중가’를 ‘중고’로 바꾸어야 한다.

②번 [연결 논리] ‘이제 어떠하냐’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그런데 ‘엇더’ 대신 ‘평안’을 쓰면 ‘이제 평안하냐.’가 되어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의문문이 된다. 따라서 ‘-고’를 ‘-가’로 바꾸어야 한다.

③번 [연결 논리] ㄴ과 ㄹ은 ‘어떻게’와 같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⑤번 [연결 논리] ㄷ은 판정 의문문이고 ㄹ은 설명 의문문이지만 ‘-나다’라는 같은 의문형 어미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따로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7.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14.10)

<보기 1>

국어의 표기법은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하여 왔다. 여기서 이어 적기란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식이고, 끊어 적기란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한편 근대 국어에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과도기적 방식이 나타났는데 이를 거듭 적기라 한다.

<보기 2>

부영이 對答(대답)하야 같오디 이 地方(지방) 스흘은 내 ㉠우를 쇼릭를 미워하논 故(고)로 나는 다른 地方(지방)으로 올무라 하노라 하니 비둘기 ㉡우서 같오디 즈네 우는 쇼릭를 곳치지 안코 居處(거처)만 옮기면 如舊(여구)히 썩 ㉢미워흐을 免(면)치 못하리라 하얏소 이 이이기는 츠 滋味(자미)잇습나이다 여러분 중에도 自家(자가)의 약흔 ㉣일은 곳치지 안코 다른 디로만 가라고 하느니 ㉤잇스면 이는 亦是(역시) 이 비둘기에게 우슴을 보오리다

- 「신정심상소학」1896년)에서 -

(현대어 풀이)
부영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지방 사람은 내 울음소리를 미워하는 까닭에 나는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 한다.”라고 하니 비둘기가 웃어 가로되 “자네가 우는 소리를 고치지 않고 거처만 옮기면 여전히 또 미워함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기의 약한 일은 고치지 않고 다른 데로만 가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이것 역시 이 비둘기에게 웃음을 살 것입니다.

	이어 적기	끊어 적기	거듭 적기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 논리] 국어의 표기법은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하여 왔다고 한다. 즉, 중세에서 현대로 갈수록 끊어 적기가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형태와 현대 국어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보아야 한다. ㉠과 ㉡은 현대 국어의 형태가 ‘울음’과 ‘웃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끊어 적는 것이다. ㉢과 ㉣은 소리 나는 대로 ‘연음’하여 표기하고 있다. ㉢과 ㉣은 끊어 적기의 형태인 현대 국어와 대응해봤을 때 그 표기가 동일하므로 끊어 적기에 해당한다. ㉤은 앞 음절의 종성인 ‘ㅅ’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거듭 적기에 해당한다.

168.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3)

<보 기>

[중세 국어] ㉠부테 目連(목련)이드러 ㉡니르샤디
[현대 국어]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

[중세 국어] 耶輸(야수) | ㉢부텃 使者(사자) 왔다 ㉣드르시
고
[현대 국어]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중세 국어] 내 쫄 勝鬘(승만)이 聰明(총명)하니 부터웃 ㉤
보스북면
[현대 국어]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만 비면

- 『석보상절』 -

- ①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③ ㉢: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연결 논리] 두음 법칙 중 'ㄴ' 다음 법칙'은 모음이 'ㅣ, ㅑ, ㅓ, ㅕ, ㅛ'일 때 'ㄴ'은 첫소리에 나오지 못하므로 탈락시키는 법칙이다. 그런데 ㉡은 어두의 'ㄴ'에 모음 'ㅣ'가 결합되었으나 'ㄴ'이 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연결 논리] '부처'와 '부터'는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세 국어에서는 'ㅣ'를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③번 [연결 논리] 현대국어에서는 '부처'라는 체언 뒤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부터'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 '의'가 아니라 'ㅅ'이 쓰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 ④번 [연결 논리]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듣는 주체인 '야수'를 높이기 위해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번 [연결 논리] 앞 쪽 선지로 나왔다면 꽤 어려웠을 것이다. 선어말 어미 '-습-'이 객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문장의 목적어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169.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4)

<보 기>

㉠雙鵬(쌍조) | 혼 사래 ㉡빼니 絶世(절세) 英才(영재)를 邊人(변인)이 拜伏(배복) ㉢흐사븐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케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雙鵲(쌍작)이 혼 ㉣사래 ㉤디니 曠世(광세) 奇事(기사)를 北人(북인)이 稱頌(칭송) ㉥흐사븐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3장> -

- ①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ㅣ'가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 'ㅍ', 'ㅆ'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 ④ ㉣에서 양성 모음 'ㅏ'와 'ㅓ'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에서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 논리] '쌍조'는 '두 마리 독수리'에 해당한다. 현대에서는 문장의 주어인 '두 마리 독수리'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만문장의 주어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쌍조'도 문장의 주어이고 'ㅣ'는 주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번 [연결 논리] '빼니'에서 'ㅍ'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음절의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 ③번 [연결 논리] '△', 'ㅍ', 'ㅆ'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 ④번 [연결 논리] 모음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ㅏ'가 양성 모음이라는 것은 대개 잘 알지만 'ㅓ'가 양성 모음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ㅓ'는 양성 모음인 'ㅏ'와 음성 모음인 'ㅣ'가 결합했기 때문에 양성 모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음성 모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⑤번 [연결 논리]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와 만나서 'ㅈ, ㅊ'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에서는 'ㄷ'의 'ㄷ'이 'ㅈ'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17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7)

학습 자료	중세 국어의 ‘습/즙/습’은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다.
	[중세 국어] 聖子를 내㉠신니㉡이다 [현대 국어] (하늘이) 聖子(성자)를 내셨습니다.
	[중세 국어] 世尊尊존사 安否否불 물㉢쥬고 [현대 국어] 世尊(세존)의 安否(안부)를 여쭙고
	[중세 국어] ㉣진지 오를 제 받드시 [현대 국어] 진지 올릴 때 받드시
학습 활동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_____ [가] _____)

- ① ㉠: 주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 상대를 높이는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객체를 높이는 ‘-즙-’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받’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 논리] 이 문장에서 주체는 ‘聖子(성자)’가 아니라 ‘하늘’이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해 ‘하늘’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聖子(성자)’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즉 객체에 해당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연결 논리] ‘-이-’가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 국어에서 ‘내셨습니다.’처럼 상대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중세 국어에서는 ‘-이-’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③번 [연결 논리] 중세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즙-’을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④번 [연결 논리] ‘받’을 높여 이르는 말로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⑤번 [연결 논리] 주체인 ‘하늘’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해 높이고 있으며, 상대를 높이는 표현(중세 국어에서는 ‘-이-’, 현대 국어에서는 -습니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71.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7)

—<보 기>—

[중세 국어]
 나라히 파망(破亡)하니 :파·와 ㅁ·릅썸 잇고
 ·жат 앓 보·뵈·플·와 나모:썸 가궤토타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하:므를 쓰·리·게 ·코
 여·회·여·슈를 슬·후니 :새 ㅁ·스·물 :놀·래·느다
 봉화(烽火)] :석·드·물 나·세·사·니
 자·빛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 ① ‘보·뵈’는 현대 국어의 ‘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쓰·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ㅁ·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ㅁ’, ‘·’가 사용되었군.
- ⑤ ‘드·물’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 논리] ‘보·뵈’는 ‘봄’의 종성인 ‘ㅁ’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된 상태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연결 논리] 현대 국어에는 글자 옆에 방점이 붙지 않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방점이 붙고 있다.
 ③번 [연결 논리] ‘쓰·리·게’는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인 ‘ㅅ’과 ‘ㄴ’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④번 [연결 논리] ‘ㅁ’, ‘·’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중세 때 사용되어 오다가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소멸하였다.
 ⑤번 [연결 논리] 모음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ㅁ’라는 양성모음에 ‘ㅡ’라는 음성모음이 어울리고 있으므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모음인 ‘·’끼리 어울리고 있으므로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다.

152.㉔

153.㉔

154.㉔

155.㉔

156.㉑

157.㉔

158.㉔

159.㉑

160.㉔

161.㉔

162.㉔

163.㉑

164.㉑

165.㉔

166.㉔

167.㉑

168.㉔

169.㉑

170.㉑

171.㉑